

보도자료

보도일시: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배포: 2026. 05. 06. (수)

한국해양수산엔지니어링, 쿠웨이트 'Seed to Table' 원스톱 수산단지 설계 참여 - 연 3,000톤 실내양식 기반 통합생산모델 구축 -

수산양식분야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'한국해양수산엔지니어링(대표 이주석, 이금주)'이 쿠웨이트의 차세대 수산생산모델 구축 프로젝트에 핵심 설계 파트너로 참여한다.

한국해양수산엔지니어링(이하, KAE)은 지난 12월 17일 쿠웨이트과학연구원(이하, KISR) 및 쿠웨이트 현지 파트너(KTCB)와 함께 '바르-구다이(Bar-Ghudai) 수산종합단지 구축 프로젝트'의 마스터플랜 및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양식장 넘어 산업플랫폼... Seed to Table 통합모델 제시

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생산시설을 넘어, 수산양식산업 가치사슬 전체를 통합한 '원웨이 패키지 수산경제단지(One-Way Package Fisheries Economic Complex)'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. 이를 통해 종자생산부터 양식-가공-판매까지 전 과정을 연결한 'Seed to Table' 기반 쿠웨이트 자급형 수산업 플랫폼을 구현한다.

약 30ha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정부가 최첨단 부화장을 직접 운영해 종자생산을 담당하고, 민간 사업자가 이 종자를 활용해 성어를 생산-가공-판매함으로써 공급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토록 기획되었다.



KAE는 ▲ 생산프로세스 설계 ▲ 시설 배치 및 공정 최적화 ▲ 에너지효율 중심 시스템 설계 등을 포함한 전체통합설계를 담당한다.

연 3,000톤 생산 목표 ... 사막에서도 가능한 실내양식

본 단지는 총 3,000톤/년 생산을 목표로 하며, 완전제어형 실내양식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.

- 새우 1,000톤: 고도화된 바이오플락(BFT) 기술 적용
- 어류 2,000톤: 고수율 순환여과식양식시스템(RAS) 기반 생산
(함무르(Hamour), 소비티(Sobaity) 양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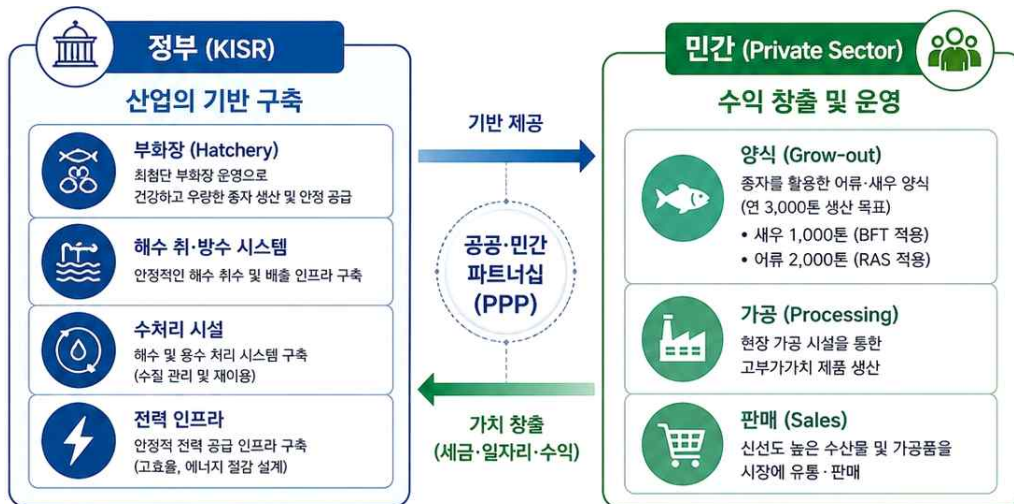
KAE는 고단열 구조와 수리설계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설계기술을 적용했다. 이는 고온·건조한 사막 환경에서도 경제성이 확보 가능한 신개념 양식 모델로 평가된다.

정부는 기반 · 민간은 수익: PPP모델 도입

이번 프로젝트에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PPP(Public-Private Partnership) 모델이 적용된다.

- 정부(KISR): 부화장, 해수 취·방수, 처리시설,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건설 담당
- 민간: 인프라 부담 없이 생산-가공-판매 등 수익화 집중

KAE는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 하는 산업설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.




미래형 수산모델 제시...2029년 상업생산 목표

KISR 관계자는 “바르-구다이 단지는 ‘종자에서 식탁까지’ 전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하는 미래형 수산모델”이라며, “한국의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해 에너지효율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, 쿠웨이트 식량안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해당 단지는 2029년 상업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며, 완공 이후 연중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- 한국해양수산엔지니어링(주): 해양수산분야 특화된 엔지니어링기업으로, 해양환경 및 수산양식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.
- KISR: 쿠웨이트과학연구원은 국가 연구기관으로, 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해 국가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.

	엔지니어링사업본부	팀장	남경주	010-9475-0978	www.g-kae.com
	설계1팀	담당자	백다예	010-2812-1507	kae@g-kae.com

붙임

KAE, '쿠웨이트 수산종합단지 구축 프로젝트' 설계 계약 체결



끝.